



대학의 역사와 앞으로의 사회적 역할



■ 정우성 교수

2002년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2003년 현재 한국과학기술인연합 (scieng.net) 운영위원
2006년 KAIST 박사
2008년 현재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물리학과 교수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교육과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학은 언제나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학의 역사를 기원 전 중국 주나라의 국학이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로 보기도 한다. 모로코에 있는 대학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대학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설립될 당시 도시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교황과 황제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최초 대학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볼로냐대학은 설립 당시 교회법과 민법 등 법학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1109년 설립된 파리 대학은 그간 수많은 신학자를 배출하던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명성과 발맞추어 신학과 철학으로 유명하였고, 지식을 가르치려는 학생과 교수의 조합이라는 대학의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국에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이 생기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초기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난다.

중세의 대학은 다양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대학을 하나의 독립된 사회로 인정하여 많은 권한을 보장받았다. 대학 내에서의 사법자치를 인정하거나 병역과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가 주어졌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설립되고,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며 지식의 전당으로 발돋움한다. 1806년 독일에서 설립된 훔볼트대학은 정치 권력에 제약받지 않는 자유를 설립 이념으로 삼아, 이후 설립되는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기원을 기원 전 중국 주나라의 국학이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등으로 보기도 하나, 현재와 유사한 형태는 중세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에 설립된 볼로냐 대학을 현대적 의미의 최초 대학으로 본다. 당시 도시의 세력이 성장하며 교황과 황제의 세력 다툼이 치열해졌으며, 볼로냐 대학은 설립 당시 교회법과 민법을 강의하는 등 법학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1109년 설립된 파리대학은 신학과 철학이 유명하였으며,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려는 학생과 교사들의 조합이 대학으로의 체계를 잡았다. 이후 1167년과 1209년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대학이 설립되는 등 유럽의 초기 대학들이 생겨났다. 중세의 대학은 다양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대학을 하나의 독립된 사회로 인정하여 대학 내 별도의 사법자치를 인정하거나 병역, 세금 등의 면제가 있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설립되고 다양한 학문의 발전과 연구가 이루어진다. 1806년 설립된 훔볼트대학은 정치 권력에 제약받지 않는 자유를 설립 이념으로 삼아, 이

후 설립되는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성직자 양성 혹은 교양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던 대학이,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를 표방하는 계기가 된다.

대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university'는 라틴어 'universitas'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universities'는 원래 대학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여러 사람의 집단을 칭하는 용어였던 'universitas'는 교사나 학생들의 조합을 칭하는 단어였다. 물론 상인 조합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즉 초기 대학은 교사와 학생이 모여서 지식을 전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집단을 가리켰으며, 근대적 의미의 대학 캠퍼스나 시설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초기에는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수업료를 모으고,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를 찾아서 수업을 듣고 토론하던 곳이 대학이다. 교수들이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위를 수여하며 다양한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대학의 모습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ACADEMIC STUDY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초기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은 지식 탐구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이상의 목적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즉 사회, 산업, 경제 등에의 기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대학의 연구 성과인 지식은 공공재로 취급되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인류의 보편적 지식 진보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학의 과학연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시는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하면, 그 성과가 응용되어 기술과 제품이 탄생하며 시장을 만들어내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후 대학의 연구역량이 커지면서 산업체와의 협력연구가 이루어진다. 공동연구, 장학금 지원, 인력 파견과 교류, 자문 등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이루어지며 대학의 연구기능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로 확장된다. 최근에는 사회맞춤형학과, 산업체 계약학과 등으로 협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1980년 미국의 베이돌 법 도입 이후 대학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지식의 이전으로 역할을 확장한다. 베이돌 법은 대학에서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 개발한 특허의 대학 소유,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상업적 이용 촉진 등을 통해 대학의 역할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기술이전 조직이 설치되어 대학의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었다. 이즈음 소개된 기업가적 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 개념은 대학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기업가적 대학은 지식 뿐 아니라 기술도 생산하고, 산업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 산업계를 위한 형태의 활동이 커진다. 대학은 더이상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영리조직으로써 기능하여 지적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수익 창출을 위해 움직이라고 한다. 정부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수익을 늘리고, 특정 산업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대학이 나타난다. 기업가적 대학에서의 교수는 교육자를 넘어서 연구조직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연구과제 수주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벤처 설립 등과 같은 부의 추구가 강조된다. 대학원생 역시 학생보다는 연구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학생과 근로자의 성격을 모두 띄는 업무형태를 가진다. 교수와 학생 관계 역시 사제관계에 상사-부하 관계가 더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저성장, 신자유주의 확산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강조되기 시작한 기업가적 대학의 개념은 차츰 보다 많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교육과 연구, 신기술 개발과 경제 개발 기여 등으로 확장된 대학의 기능에 더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전의 기술 개발과 이전, 창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대학이 추구하던 대학의 '경제적 역할과 가치 창출'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제 대학은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곳으로 변하였으며, 특히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저성장은 도리어 정부 등 공공에서 이루어지던 대학으로의 투자를 축소시키고, 대학의 비용은 이제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확대된 역할에 비해 대학의 자원 확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변화는 지식의 전수와 보존, 창출과 개발, 확산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큰 도전이다.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과 추구해야 할 이상과 목표를 미처 생각하기 전에, 정신없이 몰아치는 내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대학 사회에 상당한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대학이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대학의 본질은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교육이다. 굳이 법적인 근거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서도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이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대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하며, 대학에 요구하는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의 대학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곳이었다.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갈구하는 젊은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학생들이 돈을 모아 강의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모셔오는 비용까지 모두 학생들의 자발적인 부담이었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을, 학생들이

선택한 강사로부터 전수받는 게 대학의 시작이다. 차차 대학이 교육기관의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대학의 주도권은 학생에게서 교수로 넘어간다. 특히 당시는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책이 귀해서 도서관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지식 수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으로 학위를 주었다. 그런데 학위가 있는 사람만이 책을 볼 수 있다면,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된다. '학위수여권'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생 주도에서 교수 주도로 바뀌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이후 대학은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차차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 즉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혹은 인간의 본능인 지식 탐구를 위해 필요한 강의를 듣는 공간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교수들이 가르치기 편한 과목, 교수들이 잘 아는 강의만 이루어지고, 학생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이 없다. 물론 각 교수들의 진리 탐구와 학문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되새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대학은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한다. 급격한 사회의 팽창은 인류에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고, 일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각자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격차가 커지고,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커져갔다. 각종 대학이 생겨났고, 다양한 학위와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졌다. 도서관 출입증이었던 학위는 다양한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출입증이 되었다. 차차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위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의 위기도 찾아왔다. 대학의 위기는 비단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교를 다닐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교육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게 해주지만, 이러한 지식이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묻는다. 어쩌면 예전부터 지식이 아니라 대학 졸업

장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학 수준의 지식과 이를 증명하는 학위가 있으면, 그럴듯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긴 대학들은 스스로 학위의 가치를 하향평준화시켜, 졸업장은 이제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일보직전이다. 이제 대학이 급성장하며 만든 거품을 사람들이 자각하고, 현재 모습의 대학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덕목, 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한다. 서서히 대학은 초기 학생 주도에서 교수 주도로의 전환기를 넘어, 다시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을 하는 곳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대학의 고유한 사명이며, 대학이 존재하고 시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이유이다. 예전에는 강의를 통한 지식 전수가 교육의 전부였다면, 요즘은 좀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다. 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이로부터 확장된 연구 등도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역할로 바라본다. 이

제 대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력 뿐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이 추구해야 할 교육 이외의 가치는 무엇일까? 대학이 요구받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연구이다. 훔볼트대학 이후 강조되어 온 연구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이다. 기초학문을 비롯하여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과 디자인, 경영기법 등 다양한 영역과 스펙트럼에서의 연구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최근 사회는 대학이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재양성의 고유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후 연구대학, 기업가대학 등으로의 역할 확대가 있었다. 다시 한 번 대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할 사회의 혁신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사람과 지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의 혁신은 가장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것이다.

